

목어

방송위원 기독교 일색

이 나라의 인재는 예수교신자 밖에 없는가? 불교신자는 모두 바보밖에 없는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대통령이 천주교신자, 영부인이 개신교신자라 그런지 청와대의 정책수석이 목사, '새천년 민주당'의 주요인사에 성공회 신부가 등용되는 등 정부각료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일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방송위원회에 개신교인 5명, 천주교인 1명, 무종교인 3명으로 구성되어 종교의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과 행정권 내지 공영방송사의 인사권 등 방송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

방송은 현대 사회에서 모든 정보의 유통과 생활문화의 보급을 담당하는 귀와 눈의 역할을 한다. 국민이 보고 들어서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마당이 편중되어 보급된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편식으로 인한 기형상이 자행되어 바른 견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은 단순한 뉴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민족문화의 창달과 생활문화의 전광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계도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종교 사회에서 어느 특정 신앙인에 편중된 인사로 구성된다면 대다수 타종교인의 무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공공방송 보도에서 '뇌사판정'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기도하는 목사의 모습 뿐만 아니라 목사가 뇌사를 결정하는 등의 장면은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의 경우도 결혼식 인중에 종교인의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신부의 사인도 유효한 것을 보면, 종교의 중립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교 공화국'이라 불리는 현 정부는 종교문제에 있어 엄격히 중립에 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러한 사태가 되도록 방관한 불교종단도 각성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1천만 불자들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올 어떤 사업 펼쳐나

종책 자문위 구성 사회변화 능동대처

조계종총무원(인장 정대)이 17일 오후의 중앙총무기관 총무계획을 발표했다. 예년 같으면 11월 정기중앙총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 1월 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총회가 유회를 거듭하는 바람에 예산을 심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 아직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규사업의 집행은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계종 예산안은 3월 중순 열릴 예정인 중앙총회에서 확정된다.

총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종단안정과 화합 △창정종중 선양과 승가교육의 진흥 △불교문화선양 △사찰환경 보존과 대사회활동 강화 △남북불교교류 및 해외 연대활동 활성화 △신도교육 체계화를 통한 포교·전법의 확대 △본말사 총무행정구축 및 서비스 행정 구현 등 7가지를 주요 종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종단 안정·화합
종단운영에 종도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로스님들과 종진 스님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원로회의와 본사주지회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자문위원회에 재가 전문가도 참여시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계자 사면·복권을 실시해 분쟁의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종단안정을 위해 참회와 개전의 장을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하며, 법적인 결림들이 있다면 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정종중 선양
98, 99년과 같은 종단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중심의 승가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인식이다. 승니 분한신고를 실시해 승려이동 및 신상의 변동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물질기반을 스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승가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설립에 따른 기초 조사에 착수한다.

종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승가위계에 따른 의제 연구, 조계종 근현대사 연구 및 정리도 올해의 주요한 사업이다.

불교문화 선양
불교문화재를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중점 추진한다. 3월중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을 설립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문화재 지정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불교무형문화재 실태조사 및 전산화, 경기지역 사지 보고서 발간,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부·실장 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총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동화사 불국사 고운사 본말사 성보신탁조사를 위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5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된 진감국사 기념사업, 전통경연대회, 연등축제의 시민축제화도 문화분야의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조계종은 이밖에 불교종합화관 건립봉사 추진계획 재수립, 불교사회교육원 설립 지원, 국제불교현황 자료집 발간, 통합총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해암증정 동안거 해제 법어

天寒日短하니 解制急迫이라
南山巔頂에 瑞雲過空하고
漢江流水는 畢竟歸海로다
神龜負圖에 文殊失色하고
順水流沍하니 疎山舒光이라
照用同時는 卽不碍이어나니
照用不同은 作發生고
携帶放書하니 諸侯避道로다

密移一步六門眺하니 無限風光大地春이로다
喝一喝

날씨는 차고 해는 짧으니 해제가 절박하여졌다
남산 꼭대기에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에 퍼져 있고
한강 흐르는 물은 필경에 바다로 돌아간다
신령스런 거북이 그림을 지고 오니 문수가 빛을 잃고
잔잔한 물에 배를 띄우니 소산에 빛이 비친다

조(照)와 용(用)이 때를 같이 함은 문지 않거나
照와 용이 때를 같이 하지 않음은 어떠한가?
최인이 사면장을 가지고 나타나니 제후가 길을 피하네

은밀히 한 걸음 옮기며 六門이 밝아지고
한없는 風光에 온누리가 밝이로다
아악

수행지침 담은 깨달음의 나침반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⑦ 선어록이란 무엇인가

는 경전의 종류가 많아지면서부터 각 경전간의 유기적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교판(敎判)이다.

한편 선사들은 실제 수행 상에서 생기는 문제를 일상화화를 통해서 설명하게 된다. 게다가 금강 중심의 강사(講師)가 아닌 법당 중심의 선사(禪師)에서 조석으로 주지가 법당에 올라 이른바 상당설법을 행한다. 이와 함께 수행자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설법을 하거나 문답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의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선사어록이다.

선사들도 처음에 강사들처럼 정형화된 틀을 고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전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불전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선서를 논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풍도 당나라 말기를 전후로 변한다. 선서에 경전 인용의 빈도가 줄어든다.

먼저 대표적인 선서로서 <육조단경>

을 들 수 있다. 이 <육조단경>에서는 많은 경전을 인용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해준다. <육조단경>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유마경> 등등의 대승경전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가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전통은 마조스님의 어록 속에도 현저하게 드러난다. 주로 인용되는 것으로는, <이입사행론> <유마경> <열반경> <대반야경> <능가경> <화엄경> 등이다. 특히 <유마경>의 문구는 상당히 많이 보이는 편이다. 이런 현상은 황백선사의 <전심법요>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스님의 어록인 <임제록>에서는 <수능엄경> <심지관경> <정법염처경> <유마경> <화엄경> <열반경> <화엄합론> 등의 경전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수행의 지침을 보여준다.

이렇게 경전을 인용하여 수행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선서스님으로 영명대수를 꼽을 수 있다. 영명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부교수

선사는 <종경록> (전100권)을 저술했는데, 여기에서 영명선사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경전을 인용하고 있다. 애초부터 선과 교를 나누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문자로 기록된 선서가 출현된 뒤로는, 그 선서를 교재로 삼아 강의가 진행된다. 이것이 이른바 송고(頌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두종현선사의 <실두송고>이다. 송고란 말 그대로 옛선사들의 깨달음에 대한 기원들을 운문체로 코멘트하는 것이다.

그 후 송나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송고에 다시 코멘트 하여 수행하는 남자들을 지도하는 이른바 평창(評唱)이라는 강의 형태가 출현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원오극근선사의 <백암록>과 만승행수선사의 <종용록>이 있다. 경전의 강의와 주석서가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듯이, 선서에서의 송고 내지는 평창도 강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개별적인 선서의 출현과 더불어 선종의 역사서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등사(燈史)로써 <조담집>이나 <경덕전등록> 등이다. 여기에서 다시 종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각 선사들의 이야기를 어떠한 순서로 편집 정리하느냐는 문제이다. <조담집>이나 <경덕전등록>만 하더라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그 배열에는 상당한 특색이 있다. 즉, 해능스님 이하의 배열에 있어서 <조담집>은 청원행사의 계열을 먼저 하고, <경덕전등록>은 남악회암의 계열을 먼저 기술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범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편집자의 범용의식과 결부되는 것으로, 선종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이런 현상은 후대의 <오동회원>이나 <고존속어록> 등에 가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필자는 선서의 출현을 경전의 강의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강의라는 단문의 형태를 통해서 불교의 핵심인 번뇌를 어떻게 퇴치할까에 대해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사례들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례들을 활용하여 각자 자신의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삼을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선서를 읽어야 할 이유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설교문: 고은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o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이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해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해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찰을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이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면을 안정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분위기를 높여준다.

『華嚴經』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五分향을 찾아가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증성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칠노하지 못하고 이례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니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가득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내 해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동 hesap 071-02-257470
에 급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